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8월 17일(금)

(음력 7월 7일)

Пятница

17 августа 2018 г.

№ 32(11679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8월 15일 마카로브시 문화회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음악단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공연 이후 조선 아티스트들의 기념사진. (관련 기사 3면) (배순신 촬영)

9월 9일 사할린주내 11개 구역에서 의회의원 선거

9월 9일은 선거일이다. 이번 사할린주에서 주두마의원 보궐선거와 주내 11개 구역(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아니와, 돌린스크, 쿠릴스크, 마카로브, 오하, 스미르니흐, 티몹스코예, 우글레고르스크, 홈스크, 유즈노쿠릴스크)에서 의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사할린주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의회 선거에 975명이 후보로 등록되었다.

실제로 후보 수는 훨씬 적다. 당소속의 후보명단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사할린과 쿠릴지역에서는 6개 정당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가하고 있는데 <에지나야 러시아(통합당)>당, <러시아연방공산당>, <러시아 공산당주의자>당, <자유민주당>, <스프라베дли바야 러시아>당, <여성을 위한 러시아>당이다.

거의 각 구역의 비례투표에는 당 소속 명단으로 평균 70명 정도이고, 1석 의원 선거에는 평균 14-18명의 후보가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에는 비례투표에 66명, 1석 의원선거에는 20명이 출마한다.

아니와에는 비례 투표에 후보 72명, 1석 후보로는 22명이 등록되었다.

돌린스크에서는 비례투표에 70명, 1석 후보로는 16명이 출마한다고 전해졌다.

제7기 쿠릴스크 구역의회 의원으로는 당 명단에 후보 46명, 1석 후보로는 14명이 나섰다.

마카로브의회 의원선거에서는 후보 67명(비례투표)과 14명(1석)이 선거명단에 올랐다. 오하에서는 후보 73명(비례투표)과 37명(1석)이 등록되었고, 스미르니흐에서는 후보 72명(비례투표)과 18명(1석)이 경쟁하게 되었다.

티몹스코예에서는 후보 68명(비례투표)과 26명(1석), 우글레고르스크에서는 후보 74명(비례투표)과 23명(1석), 홈스크에서는 후보 69명(비례투표)과 34명(1석)이 등록되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유즈노쿠릴스크구역에는 60명의 의원후보가 비례투표에 참가하고 17명은 1석 선거에 나설 것이라고 주선거위원회 측이 전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사할린주두마의원 보궐선거에는 6명이 등록되었다.

올해 사할린주 내 지방도로 50km 수리

지역의 18개의 지방자치체 전체에 도로공사작업이 시작된다. 주정부는 이 용도로 10억 이상의 루블리를 지급했다. 올레그 코제마코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들과의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주 보조금의 약 3분의 1은 이미 배당되어 도로공사 계약은 7구역에서 체결했고 9구역에서는 일부만 체결되었다. 오직 2개의 지방자치단체(홈스크와 토마리구역)에서는 아직 입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주민들의 도로이용 편의를 위해 공사 진행에 앞서 예산을 지급하여 조속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니와·토마리·홈스크 구역의 도로공사에 부진하여 기한을 못 지킨 관계자들을 징계했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단신

주지사, <엑손 네프체가스 리미티드>컴파니 회장과 만나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와 <엑손-네프체가스 리미티드>회사 사장인 스티븐 바트는 회의에서 <사할린 -1>기획의 일환으로 예상되는 원유 및 응축액 생산수치에 대해 논의했다. 주지사는 사할린과 쿠릴의 예산편성에 있어 석유·가스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역할이 크다고 언급하며 주정부는 석유·가스기업체들의 안정적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엑손사의 스티븐 바트 사장은 기획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원유 채취량은 21만1천 톤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6월에는 생산량이 더욱 증가해 결과적으로 연말에 지방과 연방예산에는 추가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남에서는 복지에 관한 의제가 언급되어 2018년 정부협력업체들은 중고등교육, 보건, 환경보호 분야 향상을 위한 기획 실시와 북방소수민족 대표자들 지원에 7500만 이상 루블리 책정했다.

사할린동포 유소년축구팀 동북아축구대회 참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사할린주한인회가 구성한 동포 유소년축구팀(20명)이 8월 16일 한국으로 떠났다. 동북아포럼에 초대받은 이들은 동북아한민족유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8월 23일까지 한국에 있는 동안 사할린팀은 축구만 아니라 문화체험도 하고 탐방도 하면서 한국의 유소년축구단과 우정을 나눌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최될 세미나에서는 사할린 강제동원 역사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주한인회 관계자가 알렸다. 축구대회에는 러시아 사할린팀 외에 동북아 국가 여러 팀들도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할린, 석유 및 가스 공업 단지 조성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와 <사할린 에너지> 최고운영책임자인 므클래스타드 올레 토르뷔요른은 대규모 기획 시행 절차를 논의했다.

사할린 주정부의 주도로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사할린 에너지>는 <유즈나야>선도사회경제 개발구역에서 석유 및 가스 공업 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동북부에 30헥타르의 확보된 부지에는 건설을 시행할 석유 및 가스 기업체들과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생산 시설과 보관 시설들이 배치될 예정이다.

므클래스타드 올레 토르뷔요른이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현재 토지 관련 수속문제가 처리되고 있다고 한다. <사할린 에너지>는 제1단계로 공업단지에서 난방 저장소, 조립식 사무실, 중장비, 전기기구, 시험용 장비와 자동화 장비 등 설치, 그리고 작업장 5개를 배치할 계획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석유·가스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석유 및 가스 기업체의 운송비 절감과 비용의 최적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방예산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지사는 전했다.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주한인회 운영위 회의에서

오는 30일 록산원농장 내 추모관 준공식에 불참을 만장일치로 결정

지난 11일(토)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주한인협회 운영위원회 확대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에는 운영위 위원 27명 중 22명이 참가했다. 그외 회의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회원을 비롯한 여러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3가지 문제가 의제에 올랐다. 주한인회 2/4분기 사업 결과와 3/4분기 사업 일부 보고, 주한인협회 정관 변경사항과 사할린주 한인협회 명칭 변경에 대한 문제다.

사업보고를 한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은 이날 현재 주내에서 1세 동포 573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1세 어르신 145명에게 새고려신문을 구독하도록 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올해 25명의 1세들이 16명의 가족보호자의 인솔하에 <사할린 1세 잔류한인 초청진료사업>으로 한국에서 정밀검사와 진료를 받았다.

1세를 대상으로 하는 음력설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한인문화센터 내 의료상담실도 잘 운영해오고 있다. 1세들을 위한 의료상담실 운영은 일본이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항상 지원이 늦어지다가 올해도 아직까지 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올해 주한인협회가 확보한 두 가지 장려금 기획 중 하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세대 간 소통, 전통의 계승>이란 기획으로 주정부가 지원한다. 다른 하나는 <노년세대를 존중하며 삶을 지킵니다>란 기획인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어버이날 행사도 새롭게 진행하고 문화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마사지도 하고 있다. 현재 1세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무료 (자원봉사)미용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4월에 사할린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는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사할린한인단체장 정례회의가 소집되었다. 올해도 몸이 불편해서 역방문을 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자녀들이 방문했다. 이 사업

을 한국측이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일부를 일본 측도 지원하기로 했다.

박순옥 회장은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의 초청으로 60명의 학생들(안산 고향마을 거주자들의 손자녀)이 한국을 다녀갔다고 보고했다. 그는 앞으로 동포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우선순위로 한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알렸다.

홀스크구역 포자르스코예(미주호)촌 27인 한인피살자 추념비 현장 관리작업도 계속할 계획이며 오는 8월 29일에는 의자 설치 작업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에 제작한 <미주호촌의 비밀>다큐멘터리에 한국어 자막작업은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박 회장이 밝혔다.

얼마전에 주한인회에 생긴 청년부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광복절 행사에서 청년부가 여러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박순옥 회장이 강조했다.

올해는 한인문화센터 지붕, 입구 계단 등을 수리했다.

박순옥 회장의 사업보고를 청년부 담당 박 알렉산드르가 보충하였다. 청년부 젊은이들이 이미 미주호촌 한인피살자,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왔고 현재는 월드스킬스 대회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주한인협회 청년부 담당은 현재 사할린주드마 소속 청소년의회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현재 청년부 회원이 칼리닌그라드에서 진행되는 국제교육포럼에 사할린주한인회를 대표하고 있다고 박 알렉산드르가 강조했다. 그는 청년부 회원들이 광복절 행사는 물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기념행사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요 사정으로 정관변경 보고 담당자가 참석하지 못한 이유로 주한인협회 정관 변경사항에 대한 문제는 다음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한글 이름 변경문제는 이날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은 이날 현덕수 사할린한국한인회 회장과 불만스러웠던 얘기들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4년 전에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체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공동묘지에 사할린회 생위령비를 세웠다. 문제는 이 토지는 사할린주한인회(그당시 회장 임용군)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에서 허가를 받고 매입했다. 위령비를 세우기 위해 철거작업도 하고 콘크리트 포장작업도 했다. 이 작업으로 임 회장은 그 당시 140만 루블리를 개인돈으로 지출했다고 했다. 그러나 현 회장은 주한인협회 회장이 부지를 매입한 사실도 처음엔 한국 측에 알리지 않고 이곳에 몰래 위령비를 설치해놓았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측의 요청은 한 가지 었다. 위령비에 사할린한인단체들도 참가했다는 것만 새겨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이 약속을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지키지 않았다. 현덕수 회장은 바로 이 단체의 사할린대표다.

사할린한국한인회와 사할린주한인회와의 갈등은 작년에 더욱 불거졌다. 한국 의원들의 사할린 방문건도 있었고, 작년 세계한인회장대회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섹션에서 현덕수 회장은 박순옥 회장이 한국국적이 아니니 사할린한인회 회장 자격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박 회장은 강제동원 역사를 얘기하고 사할린 동포들이 한인으로 불리를 자각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사할린주한인협회 이름으로 이 단체가 25여년을 살아왔고, 한국에서도 이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박회장이 표명했다.

그러나 올해 5월에 갑자기 2018년 7월 1일부터 사할린주한인협회가 사할린고려인동포회로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문서가 한국에서 돌기 시작했다. 박순옥 회장이 이런 약속을 세계한인회장 대회에서 했다는 것이다. 이 문서에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에 사업차 이민한 한국

사람들이 서명했다고 했다. 이에 박순옥 회장은 사할린주한인회 이름을 바꾼다고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변론으로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등 고려인단체 회장들의 증거 서한을 받고 있다.

주한인회는 작년에 사할린한국한인회와 협력협약을 파기하고 올해 2월에는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체와도 협약을 폐지했다고 박회장이 상기시켰다.

이 문제 토론에 나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운영위 위원인 김종길 씨는 최근에 이 상황을 알게 되면서 무척 놀라워했다. 특히 "사할린 강제동원 무연고자 추모관을 개인농장에서 세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김 위원은 강조했다. "사할린한인동포역사로 한국사람이 돈을 번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며 "절대 추모관 준공식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립종환 회장은 한 달 전에 현덕수 회장에게 8월 30일 추모관 준공식에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 급히 시한인회 운영위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추모관 준공식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립 회장은 중요문제 때 혼자 결정을 하지 않고 항상 운영위원 회의를 하여 결정을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할린주한인협회 이름 변경을 두고 발언한 김홍지 주노인회장, 2세 동포인 이채인 씨, 시인 장태호 씨 등은 이름을 절대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운영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 추모관 준공식에 참가하지 않을 것.
- 앞으로 한국한인회(회장)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지 않을 것.
- 사할린주한인협회의 한글 이름을 절대 바꾸지 말 것.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3명의 운영위원도 본 결의문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보내왔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주, <내셔널 지오그래픽 여행자> 콩쿠르에 참가

사할린주는 <2018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여행자 시상>대회 일환으로 진행되는 "러시아 미식여행" 부문에 참가한다. 가장 대중적인 휴양지의 형식 중 우수관광지 선정을 위해 온라인 투표로 총25개 부문이 소개되었다.

기획의 주최 측은 사할린 지역 묘사에 있어 사할린의 요리를 강조하며 무엇보다 신선한 해산물로 굴, 대게, 가리비, 새우, 송어를 언급하고 있다.

'고사리와 머위로 만든 요리는 전통요리로 여겨지고 일식과 한식은 지역 요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에 우수 한식과 일식은 사할린에 있다'고 투표자들은 홈페이지에 전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요하라>일식 레스토랑 사장 박 세르게이의 견해로는 모스크바에 있는 일식집과 사할린의 일식집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인접한 해돋이는 나라 덕에 요리에 필요한 해산물들을 직접 공수해 올 수 있다. 우리의 특권은 섬 방문객들과 주민들에게 일본의 어떤 방면의 요리든 신속하게 접하여 요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박 세르게이 사장은 말한다.

<러시아 미식여행>부문에 사할린주 외에도 차크차크 다과와 종합채소 스프가 전통요리인 타타르스탄 공화국이 참가하고, <미식>부문에는 많은 양의 여름 요리축제로 명성이 높은 블라디미르스카야주와 마슬레니차 여왕의 거주지가 있는 야로슬라브주, 포자르스키 커틀릿으로 유명한 트베르스카야주가 참가한다.

투표는 10월 5일까지 진행되며 콩쿠르에서는 우수한 모험 여행지, 산악스키장, 호텔, 러시아 항공사들을 선정할 수도 있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частвует в конкурсе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частвует в конкурсе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Awards 2018 - в категории «Российский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туризм». Всего в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и за лучши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среди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видов отдыха представлены 25 номинаций.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екта в описан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тмечают,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кухня – э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вежие дары моря: устрицы, крабы, гребешки, креветки, горбуша.

«Традиционными также считаются блюда из папоротника и лопуха. Большое влияние на местную кухню также оказывают Япония и Корея. Кстати, лучшие корейские и японские рестораны в России находятся именно на Сахалине», - сообщается на странице голосования.

По мнению руководите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ресторана «Тоёхара» Сергея Пака, отличия между японским заведением в Москве и островом регион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уществуют.

- В силу близости Страны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мы можем напрямую привозить оттуда необходимые морепродукты для блюд. И наше больш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 в возможности быстро подхватывать какие-то кулинарные веяния из Японии, чтобы предлагать их сахалинцам и гостям острова, - рассказал Сергей Пак.

Помим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номинации «Российский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туризм» участвует Республика Татарстан со своими традиционными блюдами - сладким угощением чак-чак и наваристой шурпой.

Также среди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х» номинантов - Владимирская область, которая славится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летних кулинарных фестивалей, Ярославская область со своей Резиденцией государыни главной

Масленицы, и Тверская область с пожарскими котлетами.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длится до 5 октября. В конкурсе также можно выбрать лучший приключенческий отдых, горнолыжный курорт, отель, российскую авиакомпанию и другое.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 독서센터 자원봉사 클럽 설립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 독서센터는 자원봉사클럽을 설립해 오는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독서센터의 자원봉사클럽은 도서관 가치의 대중화와 사할린 주민들의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서관과 러시아작가협회 지역지회가 주관하는 기획과 행사에 협조 및 지원하려는 바람으로 연합된 동아리이다.

도서자원봉사클럽의 주요 임무는 도서관 마당에서 진행하는 독서와 도서 캠페인의 대규모 행사를 포함해 문화적 계몽행사에 협력과 진행 및 사할린 주민들의 문학적인 안목을 넓히고 독자들의 권위 향상을 조성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데 있다.

클럽 참가자들을 위해 회곡 작성법에서부터 기획 실행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청년행사를 포함하여 자체 행사 조성 시 청년들에게 유용한 예술적, 지적 능력의 발전을 목표로 삼고 사할린 작가들과의 만남, 대담, 수업, 활동교실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클럽의 조직위원들은 회원들이 도서관 사서의 역할을 자신이 직접 수행해보는 활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 자치의 날을 도서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Центр чт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и откроет клуб волонтеров

При центре чт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будет создан клуб волонтеров, презентация которого состоится в сентябре.

(8면에 계속)

조선 통일음악단, 훌륭한 무대 선보여

올 8월 18일 진행된 광복 73주년, 남부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 73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4일(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음악단이 사할린에 도착했다.

이에 앞서 조선공화국 통일음악단은 지난 15일 마카로브시 문화회관에서 단독 공연을 가지며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조선 음악가들은 아름다운 목소리, 신난 무



한국어통역 자원봉사자 포상

8월 8일-12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제6회 '청년 전문가들' 러시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WorldSkills Russi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이 대회에는 7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했다.

지난 13일(월) 이들을 위한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사할린주한인협회 청년부 회원을 비롯한 사할린동포 7명(박 알렉산드르, 이 왜 채슬라브, 정해경, 이 세르게이, 박선희, 신 인가, 김병화)이 대회 조직위원회측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이들은 한국에서 심사하러 온 전문가들의 한국어 통역을 직접 맡아 좋은 평판을 받았었다.

(본사 기자)



사할린 강제이주 한인의 삶 기록해 책 펴낸 대학생들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사할린 강제이주 한인의 삶을 기록한 책을 펴냈다.

충북대학교는 이 대학 러시아 언어문화학과 학생들이 <그 섬, 잊혀진 사할린 한인들의 이야기>를 출판했다고 13일 밝혔다.

참여한 대학생은 강지인 씨(23·여), 강호수 씨(23·여), 김주연 씨(23·여), 이동우 씨(22), 천인화 씨(23·여) 등 모두 5명이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는 63명의 사할린 영주귀국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이들을 찾아 인터뷰에 나섰다.

총 120일, 하루 3~4시간씩 사할린 한인 2세대들을 만난 이들은 134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펴낼 수 있었다.

도서 발행을 기획한 강지인 씨는 "강제징용의 아픔을 갖고 한국을 그리워했던 사할린 한인들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 책을 만들게 됐다"며 "책에는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이야기와 정착과정, 사할린 한인 2·3·4세대의 삶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책에는 사할린 영구 귀국자들로부터 받은 사진자료도 실었다.

100여 장의 빛바랜 사진에는 사할린에서 한복을 입고 회갑잔치를 여는 모습과 한국말을 배우는 까까머리 학생들, 탄광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짝은 가족 등이 담겨있다.

이들은 총 30권의 책을 출간해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충북중앙도서관에 2권씩을 기증했다.

나머지는 인터뷰에 응해준 사할린 영구 귀국자들에게 나눠줬다.

강 씨는 "차가운 이국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했던 부모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한국을 택해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들이 손자·손녀가 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충북대학교 러시아 언어문화학과 학생들이 강제징용의 아픔을 갖고 한국을 그리워했던 사할린 한인들의 삶을 책으로 출판한 <그 섬, 잊혀진 사할린 한인들의 이야기>의 표지. (충북대학교 제공)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호의 계속)

6. 영주귀국자의 문제점

(1) 영주귀국의 배경

1) 영주귀국의 시작

사실 사할린 한인의 문제는 영주귀국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영주귀국 이외에도 사할린잔류동포지원, 대일본 개인청구권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나, 영주귀국만이 중요사안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사할린 한인들이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나고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는 이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박노학, 이희팔, 심계섭-1958년 '일소공동선언' 으로 일본으로 돌아온 한인들- 등이 주축이 되어 '화태억류귀환자동맹본부'를 결성하였으나 '억류'라는 단어가 소련을 자극하는 단어라고 하여 '화태귀환 재일한국인회'로 개명하고 본격적인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그들은 일본 국회의원, 관계부처, 적십자사 등을 방문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할린으로부터 오는 편지들을 한국에 보내는 활동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는 한국과 소련이 국교 정상화가 되질 않아서 우편물의 가교 역할을 그들이 한 셈이다. 한국에서는 박노학 씨의 아들 박창규 씨가 이 편지들을 전달하다가, '카라후토 억류교포 귀환촉진회'(나중에는 중소이산가족회로 개명)가 이 활동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편지 전달기간 동안에 이를 받아든 사할린과 한국에서는 서로 간에 충격을 받아, 사할린에서는 이 편지들로 인하여 마음 고생하다가 사망한 이들도 많다고 들었다. 이러한 서신교환으로 1967년에는 이를 근거로 1,744세대 6,924명의 귀환희망자 명단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사할린에서는 고국으로의 귀환을 바라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1976년 7월에는 사할린주 출입국 사무소에서 출국희망자 신청을 받으니 거의 800-1000 여명이 접수하자 사할린 당국이 놀라서 일부에 게만 출국을 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이 남한으로의 귀환을 반대하였다고도 한다.

이에 일부 출국만 시키는 것에 항의를 하다 시위주동자로 주목받아 도만상 가족 등, 황태룡, 유길수, 이창남, 김일수 등 40여명이 북한으로 강제추방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 가운데, 박노학을 중심으로 하는 '화태귀환 재일한국인회'의 귀환운동은 마침내 1975년 12월, 사할린 한인들의 귀환 문제를 엄수갑 씨(사할린 거주) 등 4명이 원고가 되어 '사할린 잔류자 귀환 청구소송-물론 이 소송은 일본으로 귀환시키는 소송이었다'-를 동경지방법관소에 제소하게 된다. 이 소송은 일본의 다카키 켄이치(高木建一)변호사가 '재사할린 한국인 귀환 변호인단'을 결성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소송은 14년간 지속되다가 1989년 6월에 이 소송을 취하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일본 학계-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교수(동경대 국제법 교수)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아시아에 대한 전후 책임 연구회'가 결성되고, 이러한 운동 결과 일본 정계가 사할린 한인들을 한국으로 영주귀국시키는 방향으로 정하면서, 1987년 7월 17일 일본 국회의원들이 '사할린 잔류 한국/조선인 문제 의원간 담회(일본 155명 참가)'를 발족하여 소련과의 협상을 진척시키면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1990년에는 한.소 수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결과 한국 정부가 '사할린 교포 영주 귀국 업무처리 지침'을 정하는 단계까지 발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 끝에 마침내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귀국을 하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주귀국을 시행하는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2) 재외동포귀환에 대한 남북의 대결?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은 사할린 동포를 한국으로의 영주귀국을 반대하고, 반면에 한국은 재일교포의 북송을 반대하였다. 예를 들면 1959년 일본거주 재일동포들의 북송사업(북한으로의 영주귀국; 1959년부터 1980년까지)이 진행되어 9만명 이상 이주하였다. 그런데 그 대상이 주로 제주도, 경상도 출신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이론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인도주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본은 조선인을 국외로 내보내고 싶었던 것이다. 필자가 일본 京都大學(교토대학)에 있을 때에 어느 식당에 갔다가 들은 이야기로는, 경상도의 한 형제들이 일본에 10명이 있었는데, 5명은 북한 국적, 5명은 남한국적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그 문제로 형제 간에도 가끔씩 다투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북송은 제주도, 경상도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는 것으로 한국 정부로서는 반가운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북송사업을 반대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거주지선택의 자유'와 '인도주의'라는 이론선상에서 보면 사할린 한인의 귀환 문제도 한국 정부만이 국제적십자에 제기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북송사업에 일본의 책임을 물어 역으로 사할린 한인의 한국으로의 영주귀국을 요구하기도 한다.

재사할린, 재일동포를 두고 남북한이 냉전체제하에서 벌이는 외교전이 참으로 낮뜨거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음도 엿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일본이란 나라가 조선-현재의 남북한-에 던진 한일합병의 흔적은 아직도 진행형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들을 보면서 남북한 지도자는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서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멀리하는 통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기를 기대해보는 것은 필자만의 희망사항일까?

우리는 언제까지 강대국이 만드는 명석 위에서 춤을 추어야만 할까? 서로를 향한 총부리는 이제 거둘 시점이 되었을 텐데.... 두만강까지 갔다가 그 경계선에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면서 가슴이 미어지는듯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것는 뱃사공... 나는 언제쯤 두만강에서 자유로이 노를 저을 수 있을까? 망상이 아니기를.....

(2) 1945년 8월 15일이란 기준?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광복되던 날, 이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사할린에 이주하거나 거주한 사람, 또는 태어난 사람은 영주귀국대상자가 되고, 그 해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영주귀국대상자가 될 수 없어 심지어 형제들마저도 이산 가족이 되어야만 하였다.

광복절이긴 하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그들에게는 광복절이 아니며, 또 하나의 이산가족을 만드는 기준이 된 날이기도 하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Лучших шахматистов выявили на турнир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1-12 августа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первый Открытый турнир по быстрым шахматам сред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Организован он Шахматной федераци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ЮСМОСК.

В турнир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4 шахматистов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и квалификации.

В результате двухдневной баталии 1-ое призовое место занял Ден Денис, 2-ое - И Ги Су, 3-е - Ким Владимир, 4-ое - И Сергей, 5-ое - Лим Альберт.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среди пенсионеров у Хан Бон Дин,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лучшим стал Ли Максим, среди женщин - Гон Али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состоялись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понсоров ООО "Один + Два"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Ли Ен Гир), ООО "Строительная фирма СакоРенма" (Сон Чан Дин), ИП Кан Ен Гу, ИП И Ен Дю, сообщили в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е буд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открытии поминального мемориала

11 августа с.г.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ось расширенное правлени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ления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следующие вопросы: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за второй квартал и частично за третий, об изменении названия РООСК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опрос об изменении Устава организации было решено рассмотреть на очередном собрани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а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е грант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ездка на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лечение в Корею 25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оездка школьников на встречу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в Ансане, отправка детской футбольной команды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в РК, подготовка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ремонт ККЦ (крыльцо и крыша, брусчатка перед зданием ККЦ),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1-го поколения и т.д.).

Что касается изменения назва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оно было инициировано Ассоциацией южнокорейцев.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Обращен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в прошлом номере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частники расширенного правления категорически были не согласны с изменением существующего назва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Была единогласно принята следующая резолюция.

Расширенное правле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становило:

1. Не участвовать в открытии поминального мемориала 30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част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ксанвон".
2. Не участвовать в будущем во все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оводимых ассоциацией южнокорейцев 사할린 한국한인회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Хюн Док Су.
3.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 менять название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사할린 한인협회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Резолюция принята единогласно.

Поименный список членов правления (25 чел.)

Заверено печатью РООСК.

Отклик на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Обращение опубликовано в газете «Сэ корё синмун» 10.08.2018)

Что бизнесмены из Южной Кореи создали свое сообщество для ведения своего бизнеса, я слышал. Если Российский закон позволяет, они имеют право на сво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как организация, но вс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корейцами, приехавшими на Сахалин при японцах, и ушедшими или проживающими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на Сахалине, должны согласовать с нами, в лице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Без согласования с нами они не имеют право выступить от име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и в России, ни в Корею, ни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А то как то нехорошо получается. наших родителей использовали японцы, а теперь плодами крови и пота наших родителей через нас же, хотят использовать сами корейцы из Южной Кореи. Довольно странно звучат эти слова, но факт на лицо, что некоторые корейцы из Кореи хотят «примазаться» к бренд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ля своего бизнеса. На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а устах южнокорейцев, и есть подозрение, что они нас хотят использовать как бренд для своего бизнеса. По какому такому прав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а хотят использовать бренд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для этого навязывают чуждые нам названия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사할린 한인 협회 на 사할린주 고려인 동포회). В таком случае от нас есть встречное требование.

Не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своем названии слово Сахалин. Сегодня они называются (사할린 한국 한인 협회). Если они отказываются от наших предложений, то предлагаю этот вопрос поставить перед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ореи и перед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а, чтоб решить этот вопрос вплоть до выдворения их с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а. Ходят слухи, что они взяли гражданство РФ и поэтому имеют равное право с нами. Нет, это глубокое заблуждение. Они не могут иметь такого права. Если они взяли гражданство РФ, их можно сравнить с корейца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в Америке и в др. странах, но никак не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Кто такие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США? Это послевоенные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в 70-80 годах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экономика Кореи улучшается, в поисках еще лучшей доли жизни поехали жить в Америку и при этом добровольно. А мы, завезенные японцами и брошенные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и позорно забытые своей страной. И на сегодня мы должны требовать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РК, которое не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наши родители, поэтому название 사할린 한인 협회 как раз соответствует нашему требованию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гражданства.

Недавно к нам приезжал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науки из Кореи, которая узнала о нас только в 2012 году и первой ее эмоцией был стыд з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воей страны перед нами,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она узнала, учась в аспирантуре Японии и заметила, что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больше беспокоятся журналисты и адвокаты Японии, чем Кореи. Как я понял из последнего ее выступления и из статьи Цой Ген Ок (최경옥),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хочет решать вопрос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этой целью они опираются на существующий общий закон «О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ах». По этому закону они хотят поставить нас на один уровень с корейца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в США, Европе и др. странах. В этом вопросе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может осознать, чтоб не повторилась история 1930 года, когда Корея стала колонией Японии.

Чтобы эта история не повторилась вновь нужно до конца изучить причину падения Кореи.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лан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это «синяк» на лице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и, и этот «синяк» не сойдет с лица Кореи пока не решится вопрос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Но тем не менее, что нас нельзя сравнивать с корейца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признало сам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знали, поэтому они создали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х», который никак не могут утвердить и который уже более 10-ти лет блуждает в недр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следний раз этот вопрос поднимался в 2012/13 году на 19 созыве парламента РК и был отложен по причине возможного возникновения трения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Во-вторых, они второй раз признали, что есть ВОПРОС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ем, что первое поколение репатриировали в Корею. (На каких позорных условиях произошла репатриация, мы все знаем) Этим самым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знало, что есть такой вопрос. Сказали А, должны сказать и Б. А содержание и решение вопроса по Б очень многое зависит от нас самих, от нашей сплоченности.

Все что сказано выше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вопрос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здно или рано должен решиться, а быстрое решение этого вопроса напрямую зависит от нас самих, от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ЧЕЫН
10.08.2018.



11:00 18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глашает горожан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посвященный 73-й годовщин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 японского милитаризма. В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артист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и местны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ика состоятся выставки, мастер-классы, фестивали восточных единоборств, фестиваль Бибимбап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на площади, прилегающей к историческому парку «Россия-Моя история» по ул. Священномученика Илариона Троицкого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 -15.00)

Юбилеи,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Очередной меж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состоится в сентябре в Пхеньяне

Очередная, третья с начал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состоится в сентябре в Пхеньян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достигнута на межкорейских переговорах на министерском уровне, состоявшихся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пограничного пункта Пханмунчжом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Конкретную дату, формат саммита и состав делегаций, которые примут в нём участие, решено обсудит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 рабочем уровне.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проведении встреч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нынешней осенью в Пхеньяне зафиксирована в Пханмунчжом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принятой лидерами Юга и Севера 27 апреля.

Президент РК встретился с участниками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и и их потомками

14 августа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стретился с участниками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в Корее и их потомками. Встреча состоялась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в преддверии 73-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На ней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240 человек, среди которых как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е герои, так и члены семей или потомки героев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членов 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реи, в том числе проживающие за рубежом.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ло под лозунгом "О вас помнит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 этом почести отдавались на фоне корейского флага, использовавшегося во время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х поздрав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евец Син Хён Вон, а потомок известного патриота Ан Чжун Гына выступил с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речью.

14 августа отметили День памяти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Во вторник в Саду ностальгии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проведено мероприятие в память о жертвах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периода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этом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бъявило 14 августа Днём памяти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японской армии. Именно в этот день, ровно 27 лет назад, Ким Хак Сун - одна из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 впервые выступила со свидетельскими показаниями по данному преступлению.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400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госпожу Ли Ён Су и других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Визит профсоюзной делегации КНДР в Сеул

В Сеуле состоялся футбольный матч профсоюзных команд Юга и Севера. Это было уже третье по счёту подо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символизирует стремление трудящихся двух Корей к воссоединению. Первый подобный матч состоялся в Сеуле в 2007 году, а второй – в Пхеньяне в 2015 году. Делегация из 64 человек во глав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ЦК Союза рабочих организаций КНДР Чу Ён Гилем прибыла в Сеул 10 августа и в течение трёх дней участвовала в официальных встречах и мероприятиях. В ходе совместного засед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бочих организаций Юга и Севера, отраслев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встреч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план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уровне профсоюзов. На футбольном матче,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на стадионе Кубка мира,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более 30 тысяч зрителей.

Этот матч стал перв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в сфер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после подписания 27 апреля Пханмунчжом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В рамках визит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Союз рабочих организаций КНДР и дв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ассоциации – Федерация корейских профсоюзов и Корейская конфедераци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профсоюзов –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нём содержится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проведении Второго съезда профсоюзов Юга и Севера за мир и воссоединение. Он будет приурочен к 11-ой годовщине принятия Межкорей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от 4 октября 2007 года.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также проводить регулярные встречи по вопросам профсоюзного движения. Как полагают в Федерации корейских профсоюзов, подписание документа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оллегами на Севере открывает дорогу расширению межкорейских обменов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RKI)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едложили открыть круизный маршрут с заходом в КНДР

Южно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 быстро отреагировал на улучшение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разрабатывая проекты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 Среди новых предложений - открытие круизной линии по морю,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ла бы иностранным туристам увидеть столицы сразу как Южной, так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нициатором целой серии проект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 выступил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инчхонского морского порта (АИМП).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Инчхоне собираются открыть отдельный терминал для приема круизных лайнеров. В этой связ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рорабатывается маршрут с заходом круизных судов как в южнокорейский Инчхон, так и расположенный на западном побережье КНДР крупный порт Нампхо.

Оба этих порта схожи в том, что они являются главными морскими воротами в столицы каждой из Корей: в 40 км от Инчхона находится

Сеул, а в 50 км от Нампхо - Пхеньян. В этой связи возникает довольно интересный маршрут,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увидеть не только сами порты, но и обе столицы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этот тур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с прицелом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так как пока южнокорейцам посещение КНДР без особого разреш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га запрещено. Тем не менее инициаторы проекта считают, что он вполне может стать прибыльным и с ориентацией только на иностранцев. Те же китайцы, скорее всего, заинтересуются предложением. В перспективе, по мере улучш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корее всего, станут возможны поездки и для южан.

В январе 2016 года китайская компания пыталась открыть круизную линию по маршруту Циньдао - Инчхон (Сеул) - Нампхо (Пхеньян) - Циньдао. Но тогда в Южной Корее у власти находилось консерватив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о главе с Пак Кын Хе,

где не захотели разрешать проект, который стал бы приносить деньги в том числе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итоге его тогда не удалось реализовать, но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получится сейчас, когда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отеплели, а на Юге у власти сейчас люди, настроенные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Пхеньяном.

Но это не все инициативы АИМП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Как заяв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орта, они также намерены заняться модернизацие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порта Нампхо, а также начать импорт песка из другого порта КНДР - Хэчжу.

В АИМП выразили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воих силах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проектов. Дело в том, что раньше, еще до ухудш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связей, именно через Инчхон шло около 60 процентов всего оборота межкорейской торговли, а потому в Инчхоне имеют большой опыт работы с КНДР.

(Олег Кириянов, РГ)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едложил открыть беспоплатные магазины для прибывающих пассажиров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ступил с инициативой открыть беспоплатные магазины в залах прибытия аэропортов.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71 стране уже действует такая система. В случае принятия закона многие компании среднего масштаба получат шанс выйти на данный рынок, а улетающим в отпуск южнокорейцам не придётся возить с собой покупки из магазинов беспоплатной торговли во время путешествия. Между тем,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данного закона возникают опасе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 снижения уровня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аэропорту. Проект закона уже несколько раз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в парламенте страны, однако до сих пор положи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не было принято.

(KBS WORLD)

Видеоролик МИД РК об островах Токто набрал более 10 млн просмотров

Первая корейская версия ролика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К 31 декабря 2013 года, затем были созданы версии ещё на 11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в том числе английском, китайском, японском, немецком, французском, русском, испанском и других.

Большинство просмотров приходится на корейскую версию — 8,2 млн. Длительность ролика составляет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языка 4-5 минут. В нём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й суверенитет Кореи над островами Токто на основе множества исторических записей.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актёр Ки Чжу Бон получил приз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Локарно

Южнокорейский Pardo for Best Actor: Ki Joobong

актёр Ки Чжу Бон получил приз за лучшую мужскую роль на 71-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Локарно, состоявшемся с 1 по 11 августа. Он сыграл главную роль в фильме режиссёра Хон Сан Су «Отель у реки» (강변 호텔 / Hotel by the River). Для Хон Сан Су это 23-ий по счёту полнометражный фильм. В нём говорится о событиях,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ожилой человек встретил у реки двух девушек. В 2015 году Хон Сан Су получил Гран-при фестиваля в Локарно «Золотой леопард» за фильм «Прямо сейчас, а не после»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 Right Now, Wrong Then), а исполнитель главной роли Чон Чжэ Ён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приза за лучшую мужскую роль.

(KBS WORLD)



В День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военного парада не будет

1 октября, в День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военный парад проводиться не будет.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Праздник решили отметить показательны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лётчиков и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а также провести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В ведомстве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данные меры были приняты в целях продвижения диалога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Напротив, по сообщениям разведки США, Пхеньян ведёт активную подготовку к военному параду в честь 70-ле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КНДР. Однако, учитывая текущую ситуацию, скорее всего, на параде не будут показаны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ые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KBS WORLD)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дут центр опережающ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Такое заявление сдел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ера Щербина во время пленарного заседания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факторы роста-2024» в рамках Финала V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который на днях проше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частник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также стали Саймон Бартли, президент WorldSkills International, Джонг СоБ Джанг,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Samsung Skills, вице-президент Samsung Electronics, Южная Корея, Андрей Дюбанов, участник WorldSkills Russia, стажер компании Samsung в Южной Корее, Хай Мао,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China Auto Parts & Accessories Investment Holdings Corp., Андрей Никитин, губернатор Нов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и, Николай Соломон,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Феде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компетенций в сфере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Петр Щедровицкий, член Правления фонда «Центр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Северо-Запад». В качестве модератора выступал Роберт Уразов,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оюз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всех уровней задачу – в ближайшие шесть лет увеличивать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на несырьев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на 5 процентов в год. О путях решения и шла речь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Каждый из участников дискуссии озвучил собственный рецепт повышения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обрисовал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роли движения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в решении поставленной Президентом задачи.

-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среду, которая стимулировала бы собственников предприятий заниматься повышением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 заметил новгородский губернатор Андрей Никитин. - Один из важнейших элементов этой работы, безусловно, WorldSkills, соревнования молодых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Финал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всего один представитель наше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 уже шестеро. За каждым из них стоят пред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вложились в колледжи, инвестировали средства в оборудование. Создавая этот соревновательный дух, мы стимулируем собственников повышать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стабильно развивающийся регион, экономика которого испытывает потребность в кадрах для ряда отраслей, - сказала Вера Щербина. – Важно, чтобы сфер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аксимально отражала потребности рынка, чтобы выпускники без проблем получали работу. Поэтому мы активно создаем условия для участия работодателей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кадрового потенциала региона.

В 2015-2017 года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то 24 новых направления подготовки.

- Мы приступили к созданию центра опережающ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и – площадки, реализующей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е интенсив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 сокращением сроков подготовки и быстрым выходом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рынок труда по современны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использующим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 отмет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частники пленарного заседания пришли к общему выводу, что для неуклонного повышения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необходимо синхронное движение двух систем.

-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 собственников бизнеса,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 высокопроизводительн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 подвел итог Роберт Уразов. –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 системы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которая опережает, фактически навязывает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бизнесу, который ведется сейчас. И наша задача – выращивать людей не под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 той экономики, которую мы имеем, а под ту экономику, которую мы хотим получить.

В свою очередь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Ф Ирина Потехина затронула тему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индекса счастья.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демонстрирует степень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граждан жизнью.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практика, индекс счастья не всегда напрямую зависит от материальной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В это же время он зависит от того, насколько правильно выбрана профессия, есть ли у человека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 Конечно, государство должно думать о качестве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но такие элементы, как мотивация, соотношение ожиданий и реальности тоже нужно развивать,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Ирина Потехина. - Это для нас большой вызов – думать не только о материальных характеристиках, но и над уровнем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и человека в том, что у него есть. Я первый раз на Сахалине. Знаете, что бросается в глаза? Что близко к индексу? Количество цветов. Город очень зеленый, чистый и цветущий.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тут все в порядке со счастьем.

- Последний раз я был на Сахалине восемь или девять лет назад, - также поделил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Андрей Никитин. - Потрясен изменениями, которые здесь произошли. Красивый город с яркими интересными ухоженными зданиями. Видно, какой громадный объем

работы выполняется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Мне кажется, здесь живут счастливые люди.

Сахалинские строители получили награды 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празднику

Торжественное собрание ко Дню строителя состоялось 9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Лучшим работникам отрасли были вручены грамоты и благодарности. А двое сахалинцев – Владимир Полянсков и Павел Суворов – удостоены звания почетных строителей России.

Обращаясь к собравшимся,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гиона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строительная отрасль на Сахалине уверенно набирает обороты, 2017 стал для нее годом важных свершений. Успешно завершена программа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ветхого 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признанного таковым на 1 января 2012 года. Всего за последние 3 года в области было построено около 1 миллиона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более трети из которого – социальное. Регион вышел в лидер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по объема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рендных квартир для работников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и введены в строй такие важные объекты как перинатальный цент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и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инвалидов. Построено более 34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 отметил зампред. – В списке значимых для жителей объектов также - здание Центра обработки данных экстренной службы 112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 бассейном в Поронайске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Сейчас для отрасли открываются новые горизонты. В частности, принята очеред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 переселению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из ветхих и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На островах предстоит построить 46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в которых квартиры получат 25 тысяч жителей.

Говоря о задачах, стоящих перед отраслью,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главы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атьяна Стаценко добавила, что приоритет будет отдан социальному строительству.

- Мы должны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к 2024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е осталось ветхого и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 обратилась она к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строите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 В планах - строительство 23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15 новых детсадов и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умаю, что этот объем работ по плечу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Сахалинец завоевал спецприз на финале V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Worldskills Russia

Максим Богинский получил диплом за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в компетенции «Сваро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молодых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состоялось 12 августа во дворце спорта «Кристал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месте с наградами от Союз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Максим получил сертификат на приоритетное участие в отборе кандидатов в программу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Парень поделился, что для него это стало приятной неожиданностью.

- Задания, которые я выполнял на чемпионате, оказались очень сложными. К примеру, нужно было провести сварку конструкции под высоким давлением – 69 бар, - рассказал сахалинец. – Это первый нацинал, в котором я участвую, ранее занимал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в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отборочных состязаниях.

В медальном зачете чемпионат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с результатом в 345 баллов первое место заняла сборная Москвы, второе – команда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228) и третье –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107).

Нужно понимать, что для Сахалина - это первое такое серьезное командное участие в нацинале, - отметил технический директор Союз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орлдскиллс Россия)» Алексей Тымчиков. – На прошл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выборочно. Сейчас – это уже крупная команда, и есть, о чем говорить. Конкурировать, безусловно, сложно, ведь среди соперников те, которые уже по 5-7 лет участвуют в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Но старт был хороший, и в следующие годы, я уверен, результаты будут лучше.

На нашей площадке было специальное задание от компании 1С, и именно нашу команду отметили, мы получили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з.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приятно, - поделилась участница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омпетенци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Диана Оганян. – Сам чемпионат - хорошая «прокачка» наших навыков. Островная команда стала больше верить в свои возможности.

У нас было 2 задания. Первое мы знали и готовились к нему заранее, нужно было сделать оконную раму. Второе – стало неожиданностью, нам предложили изготовить скамейки. Как ни странно, с первым заданием я справился хуже.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скамейка получилась у меня одной из лучших, - поделился сахалинец Аркадий Петряев, который участвовал в компетенции «Столярное дело».

Кроме дипломов, призов и медалей многие чемпионы получили приглашения на работ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тровные работодатели сформировали 71 предложение, которые направили в адрес участников состязаний.

- Предложения поступают как о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мпаний, так и от транспортных, угледобывающих, нефтегазовых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наших ребятах,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им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а работа на Сахалине с арендным жильем и достойной зарплатой.

Как отметили участники остров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предложения о работе они получали не только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но и прямо во время чемпионата.

- В «Аплее» ко мне под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мпании,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разработкой сайтов, и на днях я иду на собеседование. Думаю,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 отметил сахалинец Иван Сабиров, участник компетенции «Веб-дизайн». – Сами состязания дали мне понимание, на что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не только в масштабах региона, но и страны, и даже мира.

По словам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Союза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Роберта Уразова, за все время чемпионата его площадки посетило почти 10 процентов населения острова.

- Чемпионат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в рекордные сроки, на это понадобилось всего 7 месяцев. При этом высочайший уровень проведения финала на Сахалине отметила даже кита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которая приехала сюда, чтобы перенимать опыт, – сказал Роберт Уразов. – Кроме того,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сех гостей,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на деловую программу. Благодаря им чемпионат стал форумом, где обсуждались самые важные вопросы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течение трех соревновательных дней участники со всей страны в возрасте от 16 до 22 лет (в ряде компетенций – до 25)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по 63 компетенциям.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на площадках ТВЦ «Аплее» и аэродрома «Пушистый». В ни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700 конкурсантов, чьи навыки оценивали 700 экспертов.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войдут в расширенный состав Национальной сборной WorldSkills Russia, чтобы представлять страну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ервенствах. Ближайшие – чемпионат Европы в Будапеште (сентябрь 2018) и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в Казани (август 2019). Чемпионы финала V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удут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участие на чемпионате Европы EuroSkills в Австрии (Грац) в 2020 году и на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WorldSkills Competition в Китае (Шанхай) в 2021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будет сотрудничать с Тихоокеанским и Нахимовским училищами в деле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Этот и другие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обсуждались на встрече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а Зайцева с участниками морского похода на корабле «Перекоп».

Напомним, 12 августа учебный корабль Балтийского флота ВМФ России прибыл в порт Корсакова. Его экипаж совершает первый арктический штурманский поход от Кронштадта до Североморска. На борту – кадеты двух военно-морских училищ страны -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и Нахимовского.

Участники делегации рассказали об условиях службы и быта в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 будущие моряки обеспечены пятиразовым питанием и стипендией, живут по двое, в комнатах есть компьютер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телевизор и душ.

Антон Зайцев предложил начальнику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высшего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училища имени С.О. Макарова Олегу Журавлеву налад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в сфере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Это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ривлечению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а службу в военно-морском флоте, повышению престижа морски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В качестве варианта та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ейчас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ведение профильной смены в одном из детских лагерей Сахалина, где морские офицеры могли бы поделиться опытом и полезными знаниями с островными детьми и подростками.

Прозвучали и другие предлож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 по обмену данными о ветеранах, экскурсиях детей на военные корабли, развитии проекта «Виртуальный музей». О последнем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высшего морского училища имени Т.Б. Гуженко Любовь Захарина: «На Сахалине очень м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их мест и архитектурных памятников, но не всегда име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етить эти города, поэтому сотрудники училища, курсанты, студенты будут производить съемки экскурсий и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создавать виртуальный музей».

В завершение совещания Антон Зайцев дал ряд поручен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развит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вижений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и вовлечение в них молодых сахалинце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9 сентября 2018 г. —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ыборы кандидата в депут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7 созыва по одномандатному округу №9

Уважаемые жители города Корсаков, Курильск, Южно-Курильс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целом!

Дорогие земляки!

Сегодня я, Суханова Окса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жительница города Корсак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ющая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Заведующая педиатр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педиатрического поликлин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г. Корсаков, обращаюсь к Вам как кандидат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ную Думу по 9-му избирательному округу!

Дорогие друзья! Я, как и Вы, являюсь жителе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к и вы, ежедневно сталкиваюсь с теми проблемами, которые присущи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Как женщина, как мать двоих детей, как медицинский работник, я вижу те насущные проблемы, которые из года в год остаются нерешёнными и лишь иногда прикрываются ширм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Сегодня проблемы Корсакова,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которые я вижу, наглядно показывают всю беспомощность стоящих у власти людей. Корсаковцы остаются один на один со своими проблемами, то же самое, без всякого исключения, творится и на горячо любимых мне Курилах. Цинизм власти, лицемерие, надменность - сегодня, к сожалению, это современные реалии чиновничьего аппарата.

Что же делать в такой ситуации? Ждать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Когда появится «добрый» чиновник и «решит» наши проблемы? А может быть, пойти немного другой дорогой, как любят говорить сегодня приверженцы СССР - «Найди в себе Сталина!»

Вот и я задумалась, видя нерешённые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ак найти пути решения и выходы из кризиса. Очень часто мои друзья и знакомые говорили мне, что с моей честностью и порядочностью мне нужно идти в депутаты.

Я воспринимала их напутствие как дружескую, товарищескую шутку. Однако, весной 2018-го года мне предложили выдвижение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ную Думу по 9-ому избирательному округу, как стороннику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ПРФ, я, не раздумывая, дала своё согласие.

Уважаемые друзья! Дорогие мои земляки! Сегодня перед нашим обществом стоят самые настоящие угро-



Суханова Окса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Родилась в г. Корсак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1.07.1973 года.

В 1990 году окончила СОШ №1 г. Корсако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1990 году поступила в Благовеще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Институт.

В 1996 году окончила Амурску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Академию.

С 1996 по 2003 год работала в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врачом, участковым педиатром.

С 2003 по 2005 год работала в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Больнице «Станц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рачом клинк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й лаборатории.

В 2005 году вернулась в Корсаковскую ЦРБ на должность участкового врача педиатра.

В 2014 году назначена Заведующей педиатр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педиатрического поликлин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Воспитывает: дочь 1996 г.р., учится в Амур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Академии. сына 2004 г.р., учащийся 8 класса.

зы. Угрозы внешние и внутренние. Внутренними угрозами я считаю неадекватную, необдуманную политику нашей власти.

В стране нарастает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ое обнищание народа.

И если в больших мегаполисах жизнь ещё как-то бурлит, как суп в котелке, то на окраинах страны ситуация крайне тяжёлая. Поднятие 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лишит граждан не только законного ухода на заслуженный отдых, но и института бабушек (Знания и опыт поколений, доброту и нравственность -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передают нам бабушки и дедушки).

Что касается жизни в посёлках и в прочих населённых пунктах, где годами нет работы, ввиду отсутствия производств, то там люди практически обречены на голодную смерть. Ведь не секрет, что основным источником доходов является пенсия родителей. Понимая всё это, видя всю эту не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т через моё сердце, я хочу внести свой жизненный вклад в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Только партия КПРФ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противником антинародных, я бы сказала варварских, законов.

На сесс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именно фракция КПРФ является противником антинародных законов, ущемляющих интересы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9 сентября 2018 года я прошу Вас, дорогие мои друзья, прийти и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мою кандидатуру - Оксана Суханова, поддержать программу КПРФ, лучшую жизнь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 уважением,
всегда Ваша Оксана Суханова.**

Публикуется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согласно п. 2 ст. 43 Закон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10 апреля 2008 года № 22-30 «О выборах депут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재외동포재단, 해외 입양 동포와 그 자녀 대상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개최

지난 7월 프랑스 현지 사전캠프 이어 한국서 입양동포 및 자녀 50명 대상 뿌리 교육 나서

수준별 한국어 맞춤 교육, 그룹별 문화 활동,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모국 체험 프로그램 마련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오는 18일(토)부터 7박 8일간 프랑스에 거주하는 입양동포 24명과 그들의 초등생 자녀 26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2018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를 개최한다.

한국어 집중캠프는 한국어 사용이 미숙한 차세대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문화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해외 입양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열린다.

— 2017년에는 CIS지역 고려인 초등학생 84명 및 재일동포 초등학생 99명 대상 한국어 집중캠프가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지난 7월 초 프랑스 클레르몽페랑에서 3일간 열린 사전 캠프에 참가해 한국어 기초수업을 이수했으며, 이번 모국방문을 통해 본격적인 한국어 수업과 모국 문화체험에 나선다.

— 개최식은 18일(토) 19시 경기도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안양소재)에서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성인 입양동포와 그들의 자녀인 초등학생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수준별 한국어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태권무, 판소리, 수목화, 케이팝 댄스 등 그룹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를 배우고 경복궁, 한옥마을 등 서울을 탐방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한편, 캠프 기간 동안 친어머니를 찾고자 하는 입양동포도 있다. 1977년 4살의 나이로 프랑스에 입양된 캉드스 졸리베 씨는 이번 모국 방문을 통해 낳아준 어머니를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우성 이사장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입양동포 자녀 대상 모국초청 캠프인 만큼 참가자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배우는 것은 물론, 모국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캠프가 재외동포의 외연을 넓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한식

한식은 문화다! 한식은 건강과 웰빙을 지향하는 음식으로 세계 식품소비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양한 한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만두 전골

전골은 원래 궁중음식에서 전수된 것으로 음식상 옆에 화로를 놓고 그 위에 전골틀을 올려놓고 뜨겁고 알맞게 식혀 먹을 수 있는 요리로 화로와 음식이 결합된 가장 한국적인 전통음식이다. 눈 오는 겨울 밤, 술상 옆에 발갛게 달아오른 솥화로를 놓아두고 두 식재료와 참기름, 장국 등을 준비하여 즉석에서 먹을 수 있어 맛은 물론 영양까지 생생하게 살려내는 품격 있는 요리로 만드는 재미와 먹는 재미 모두를 즐길 수 있다.

이 전골요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들어가는 주재료에 따라 이름이 붙어 조개전골, 내장전골, 도미전골, 생치전골, 송이전골, 낙지전골, 두부전골, 닭전골, 곱창전골 등 다양함을 자랑한다. 품격과 다양함을 자랑하는 것이 전골류 음식이다. 이들 중 만두전골은 만두가 주재료가 된다.

일반 만두 찜이나 만두국 또는 튀김만두처럼 만두만으로 만들던 요리가 진화하여 여러 가지 식재료들과 어우러진 음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떡볶이에 튀김만두를 넣기도 하고 요즘에는 쫄깃한 쫄면이나 비빔국수의 한 옆에 팔려 나오기도 한다. 국물 요리로는 떡과 함께 끓여낸 떡만두국이 있다.

이 만두를 전골 요리에 응용하면 만두전골이 된다. 전골 요리에 만두가 들어가는 경우 만두는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자잘한 해물들이나 한입 크기로 썰어진 쇠



고기, 그리고 익으면서 그 싱싱한 부피 있는 모양새가 가라앉아 흐물거리는 끓는 전골냄비 안에서 만두는 처음 만들어진 통통하고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골이 원래부터 1인용이 아니라 여럿이 나누어 먹기 위해 큼직한 전골냄비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만두는 나누어 먹는 사람들의 숫자대로 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전골에서 만두를 하나하나 건져 먹을 때, 만두는 전골의 어우러진 국물 맛을 전혀 흐트러뜨리지 않을 뿐더러 감싼 외피로 만두의 고유한 맛을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만두전골만큼 시각적으로나 양적으로 먹는 사람의 눈과 위를 만족시켜주는 음식도 없을 것이다. 통만두나 찜만두, 떡만두국에 사용되는 개수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만두전골 하나면 여럿이 배불리 다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술안주로도 그만이다. 옛날 선조들이 밥대신 만두를 먹었다면 만두전골은 밥이 반드시 팔려오지 않아도 가능한, 단품 요리이다.

(코리아넷)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Клуб волонтеров центра чтения — это команда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объединённых желанием поддержать проекты и мероприятия библиотеки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пуляризацию ценностей книжной культуры и развитие интереса сахалинцев к литературе родного края.

Главная миссия клуба — поддержка и проведение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том числе массовых акций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книги и чтения на улицах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а также мероприятий, содействующих расширению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ругозора островитян и повышению их читательской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клуба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встречи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писателями, беседы, занят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творческих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умений, которые пригодятся им при организации соб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том числе и массовых молодёжных акций (от написания сценария до реализации замысла). Также в дальнейшем организаторам клуба хотелось бы провести в библиотеке волонтерский день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члены клуба смогут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роли библиотекарей.

사할린에서 러시아 스포츠 장인 예프게니이 보로즈냐에게 기네스북 증서 수여

8월 11일 가가린 유즈노사할린스크 문화 및 휴양 공원에서 체육인의 날을 기념했다. 스포츠인과 활기찬 생활방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주요 기념일은 공식적으로 여름의 마지막 달 두 번째 토요일에 진행된다.

체육부 장관인 세르게이 부렌코브와 스포츠부 부장인 엘레나 자바츠키나는 기념행사 참가자들에게 축하인사를 했다.

이후 시상식이 진행되고 2018년 5월에 세계기록을 세운 러시아 스포츠 장인 겐 주 지구력 스포츠협회 회장인 예프게니이 보로즈냐에게 기네스북 증서를 수여했다. 이 선수는 직경 14밀리미터, 길이 1.4미터 되는 철근 12개를 48초 만에 이로 물어 구부렸다. 그는 "나는 스포츠에 25년간의 삶을 바쳤고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 8개월 동안 훈련했다.

90도 이상의 각도로 굽혀야 할 철근이 짧기 때문에 신체적 전신운동을 해야 했다. 이전에 이와 같은 일을 해낸 사람이 없다."라고 스포츠인은 말한다.

시 행정부의 감사장은 근골격계 장애를 가진 스포츠 장인 2명과, 콧나츠키 하계스포츠 종목 스포츠학교의 체육문 화훈련부 선수들에게 수여했다.

상은 러시아 투창 및 투포환 챔피언대회 2관왕인 미하일 투텐코와 스포츠 당구 우승자이자 주에서 장애인 스파르타키아드의 다수 우승자인 안드레이 세미크라가 수상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мастеру спорта России Евгению Борозне вручили сертификат Книги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са

11 августа в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 Гагари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ли День физкультурника. Главный праздник спортсменов и любителей активн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официально приходится на вторую субботу последнего летнего месяца.

Участников праздника поздравили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и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Елена Завязкина.

Затем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Сертификат Книги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са вручили мастеру спорта России, президенту областной федерации силов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Евгению Борозне, в мае 2018 года установившему мировой рекорд. За 48 секунд силач зубами согнул 12 арматур диаметром 14 миллиметров и длиной 1,4 метра.

– Спорту я посвятил 25 лет своей жизни и чтобы добиться такого результата, тренировался около 8 месяцев. Прутья, которые пришлось сгибать на более чем 90 градусов, были короткие, а для этого нужна большая физическая нагрузка. Раньше подобное никто не проделывал, – рассказал спортсмен.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город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ручили двум мастерам спорта России с поражением опорно-двиг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спортсменам отделения адаптивной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лет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им. Комнацкого.

Награды удостоились дважды призер чемпионата России по метанию копья и толканию ядра Михаил Тутенько и чемпион по бильярдному спорту, многократный победитель областной спартакиады инвалидов Андрей Семикр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광복절 기념행사

2018년 8월 18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러시아 – 나의 역사>역사파크 근처 행사장에서 광복 73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명절 행사 프로그램:

10시 – <슬라와(영예)광장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남부사할린 및 쿠릴열도 해방자 영예기념종합기념관) 성화에 헌화.

11시 – 16시 – 광복 73주년 기념행사 개막, 남북(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사할린 아티스트들의 공연프로그램.

행사장에서는 민속놀이, 스포츠경기, 민속공예교실, 비빔밥축제, 사진전시, 동양무술축제, 사할린동포 창작, 대중놀이 등이 펼쳐진다.

행사조직위원회

<2018년 제2학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의 신청>

사할린한국교육원

2018년 제2학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신청기간: 2018.8.13(월) ~ 8.31(금) 18:00
- 개강식: 2018.9.7(금) 17:00, 교육원 대강당
- 수업 시작: 2018.9.10(월)
- 신청 방법: 신청은 <http://www.sakhalinedu.com> 사할린한국교육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음. 또는 교육원에서 서면신청서 작성, 사진을 붙여 교육원에 제출.
- 문의: 교육원 전화 50-56-96

реклама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